

보도시점 2024. 12. 11.(수) 16:00
12. 12.(목) 조간

배포 2024. 12. 11.(수) 09:00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기상여건 반영 강화

- 농식품부,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위원 정수 확대하여 기상전문가 포함 여건 마련
-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및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수급 안정방안(안)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2024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4. 12. 11.(수) 14:00~16:0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민간)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정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 위원 : 정부(6) - 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통계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생산자(7) - 농협경제지주,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4) -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3)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주기적 논의와 자문을 위해 기상 전문가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확대 안건을 심의하고, 이번연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추진 결과와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안)’을 보고하였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2월 유례없는 ‘겨울장마’로 채소류 생육이 극히 부진하였고, 여름철에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기상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추진 결과 공급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김장비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배추 등 김장재료의 수급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생육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농식품부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조치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안)은 데이터 기반 생산 관리 및 관측 강화, 신규 재배적지 확보 등 생산 및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및 유통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 등을 보완·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